

영암군, 도갑사생태공원 조성...19일 오픈

도갑사 산사 일원 대단위 3천㎡ 규모 공원 조성 조경수·수국 식재 등 관광객 새로운 볼거리 제공

영암군에서는 천년고찰 도갑사를 새로운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한 문화공원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하여 사업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에서는 도갑지구 문화공원 조성 사업 추진으로 작년 옥룡교(홍예교)를 개통하고, 호남 3대 명춘인 구립전통 한옥마을과 도기박물관, 하정음미술관, 상대포에서 죽정마을·수박등에 이르는 2200 구립마을 문화길과 수리재길을 연계하는 탐방로를 개설함으로써 역사적인 의미 부여로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월출산 국립공원의 도갑사 주변에 생태계를 보호하고 군민에게 봄기운이 가득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자 3천㎡ 규모의 생태공원에 산사 초입부터 가슴을 설레게하는 큼직한 꽃송이가 더 매력적인 수국을 식재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소나무, 홍가시나무, 황금사철 등 경관적으로 우수한 수종을 식재하여 쾌적한 녹지환경을 조성해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계획이다.

군에서는 국립공원 월출산의 수려한 풍광과 풍부한 문화자산을 보유



한 도갑사를 찾는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역량을 모아 오는 19일(부처님 오신 날)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천년고찰 도갑사의 훌륭한 문화유산과 월출산의 기

암괴석, 그리고 도갑지구 문화공원이 함께 어우러진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었다"며, "화사한 봄기운으로 아름답게 조성된 생태공원을 찾아와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달래고 활기 넘치는 에너지를 느꼈으면 한다"고 전했다.

영암=조대호기자



드라마 '도도술술라라술'

목포시, 미디어마케팅으로 알린다 전국 최초 전담팀 신설...드라마·예능 촬영지 선호

'도도술술라라술', '핀대인턴'. 목포에서 지난해 촬영했던 드라마다. '도도술술라라술'은 목포 앞바다를 내려다보는 보리마당에 설치된 세트장 등 상당 분량을 목포에서 촬영했다. '핀대인턴'은 목포에서 일부가 촬영됐는데 외달도가 당시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는 등 크게 주목받았다.

드라마 뿐만 아니라 '불타는 청춘', '배틀트립', '신상출시 편스토랑', '한국인의 밥상', '안싸우면 다행이야' 등 인기 예능·교양 프로그램이 랩을 통해서도 목포는 지난해 수차례 소개됐다.

지난해 10월 13일 개재된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Feel the Rhythm of Korea)' 목포편이 11일 현재 4,818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전세계 최대 온라인 매체인 유튜브를 통해 해외로도 이름을 날리 시작했다.

이와 함께 목포의 브랜드 가치, 특히 관광을 전략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이유였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시는 2019년 1월 전국 최초로 미디어마케팅팀을 신설했다. 전담팀은 촬영 지원 요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편의를 제공하는 1차적 업무에서 머무르지 않고 능동적이고 전방위적으로 프로그램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지난해 시는 방송·영화 52건 등 다양한 매체에서 123건의 홍보 실적을 거뒀다. 목포의 성과는 홍보 전문가로부터도 인정받아 시는 한국광고홍보학회에서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2020 대한민국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 홍보대상'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목포는 대한민국 4대 관광지점도 시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인지도와 호감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방송콘텐츠가 한류를 일으키며 전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절佳的 고려하면 시에 미디어마케팅이 갖는 의미는 특별하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관광이 위축돼 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물밑작업, 특히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가야 한다는 점에서도 미디어마케팅의 중요성은 높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미래전략산업인 관광을 관광거점도시시업을 통해 육성하는 전략에서 미디어마케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면서 "좋은 상품도 널리 알려야 하는 것처럼 목포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매력도 더 넓고, 더 깊게 알려가겠다"고 강조했다.

목포=박정수기자

함평천지한우, 10마리 중 8마리 육질 1등급 '명품 맞네'

1등급 비율 78%...전남·전국 평균치보다 각각 2.9%·3.9% 높아

함평군에서 사육한 함평천지한우가 명품 한우의 면모를 뽐내고 있다. 16일 함평군에 따르면,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물이력관리 시스템 상 소 도체(한우) 등급판정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함평한우 10,487

마리 중 78%인 8,179마리가 육질등급 1등급 이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우 육질 1등급 판정 전남 평균치인 75.1%와 전국 평균치인 74.1% 대비해 각각 2.9%와 3.9%를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함평천지한우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사)소비자 시민모임이 선정한 우수 축산물브랜드로 15년 연속 인증을 받았을 뿐 아니라, 전국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에서도 다수 수상하는 등 경쟁력 있는 한우 브랜드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고품질의 한우 출현

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는 한우 농가, 한우협회, 축협, 지자체가 힘을 모아 함평천지한우 육성을 위한 품질 고급화에 집중해 온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함평천지한우의 사육, 출하, 도축, 가공, 유통 등 모든 단계마다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전국 최고의 명품한우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함평=김광춘기자

영광군, 드론 안전비행·안전운용에 당부

드론 비행 승인·자격 취득·조종자 준수사항 숙지

영광군은 드론 수요가 늘어나면서 잠재적인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체 신고제'와 조종 자격 취득 등에 대해 이해하고 관련 내용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드론은 농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고 미래 집약적 기술로 발전되고 있어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나, 드론의 사용이 증가와 대형화에 따라 그 피해도 커지는 상황이다.

사고사례로 ▲불법 항공촬영에 따른 사생활 침해,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 무단비행, ▲조종장비비행장비 조종자 무자격 비행(최대이륙중량 250g 초과 기체), ▲신고대상 드론을 신고하지 않고 비행하는 경우(사업용 전 기종, 비사업용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기체), ▲미신고 기체 또는 사용사업 미등록 기체 영리 행위,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은 기체 비행, ▲조종자 안전수칙 위반 등 범법행위를 볼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드론 기초 체험교육, 조종자격증 취득교육, 드론 방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신안 하의권역 '섬 문화 탐방 프로그램' 성료

신안군 섬문화다양성네트워크TF에서 '행복전남 문화지소, 신안(약칭 문화지소 신안)'과 '문화오름'이 협업을 통해 공동 추진한 '섬섬섬 섬 문화 탐방 프로그램'이 12일 하의도, 옥도 일원에서 코로나19 방역 및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보건 및 안전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섬 지역 문화 활

동가와 섬문화다양성네트워크TF의 추진 사업인 '바다술살리기·국제 산다이 네트워크' 예술 작가가 참여했다. 하의도와 옥도 일원에서 진행된 섬섬섬 섬 탐방은 지리·생태·역사에 기초한 문화자원을 소개하여 참석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관을 확장하도록 돕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신안=이덕주기자

무안군, 제5기 도시재생대학 수료식 개최

무안군은 지난 11일 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제5기 도시재생대학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5인 이상 집합금지 최대 4명씩 팀을 꾸려 현장 견학을 실시하고 이론 교육을 병행

운영해 주민참여형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24시간의 교육을 거쳐 수료생 27명을 배출했다. 수료식에 참석한 한 교육생은 "주민들이 직접 실행할 공모사업 계획을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2021년 완도 해양치유산업화 원년

해양치유, 깨끗한 해양환경과 다양한 해양자원을 이용해 몸과 마음 치유하는 건강증진활동

해양치유산업 완도군이 선도합니다!